



목포시의 영암군을 잇는 영산강하굿둑 제방이 관리부실로 퇴색된 채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영산강 하굿둑 제방 흉물 방치 언제까지

페인트 퇴색되고 곳곳 균열...콘크리트 제방에 풀까지 돌아 목포~영암 1.6km...관리기관 농어촌공사 “검토한 적 없다”

목포시와 영암군의 나들목인 영산강 하굿둑 제방이 관리가 부실한 채 수십 년째 방치돼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하굿둑 제방이 목포시와 영암군에 접해있다는 이유로 제방 경관과 관련 지자체들이 서로 미루고 있는 사이 산책 등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주고 지역 이미지까지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목포시와 영암군을 잇는 영산강하굿둑은 길이가 4350m로 왕복 6차선 구간이며 제방 벽화가 퇴색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목포시 구간이 1.4km, 영암군이 0.2km이며 관리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다.

특히 제방은 지난 2012년 하굿둑 구조개선 공사 이후 수십 년 방치돼 흉물로 전락한 상태로, 부분적으로 경관을 조성했던 흙이 흘러내려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아예 손을 놓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도가 F1 경기 당시 부분적으로 도색했지만 미분책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이후 이마저도 퇴색해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중재하거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전남도와 목포시다.

오는 2023년 10월 개최되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목포시에서 개최되기 때문이다.

시는 양대체전을 2000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체류형 국제해양관광도시, 스포츠 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는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며 잔걸음을 보이지만 목포시와 영암군의 첫 얼굴이나 다름없는 나들목이 흉물로 노출돼 지역 이미지를 나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국체전의 경우 선수만도 3만여명, 전국장애인체육대회 9000여명에 이르며 이에 따른 예산만도 12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체육 관계자들은 내다 보고 있다.

전남도와 목포시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제방 인근 주민 A씨(45·육암동)는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흉물스러운 제방으로 시멘트가 그대로 누출돼 삭막함을 말할 것도 없고, 부분적으로 쌓았던 흙까지 쓸려내려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목포시와 영암군의 첫 얼굴이나 다름없는 나들목에 벽화를 그리든 친환경적 나무를 심든 대책을 세워 혐오스러움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제방 경관과 관련해서는 제방이 있는 목포시와 영암군에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이에 따른 예산이 없으며 검토도 해 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영산강 하굿둑 제방과 관련 지난 2012년 160억원 규모의 친환경 조성사업을 목표 용역을 의뢰했지만 수포가 되어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시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영암군, 그리고 목포시가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무팀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진도군, 전선지중화사업 선정...27억 확보

진도초~오토하우스 830m

진도군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2023년 그린 뉴딜 전선지중화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27억원을 확보했다.

사업 구간은 진도초~오토하우스까지 초등학교 통학로 830m로, 등·하교시 교통이 혼잡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이다.

군은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행정 인·허가, 실시설계를 완료 후 착공해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전선지중화사업은 그동안 사업비의 50%를 군에서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공모사업은 국비 20%, 군비 30%, 한전·통신사 50% 비율로 총사업비 27억원을 분담해 군으로서 재정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그린뉴딜 전선지중화사업은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중화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주를 철거하고 전선과 각종 통신선을 지하에 매설해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및 시각적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국비 지원사업이다.

진도군은 2024년 사업으로 진도계 테마파크(일신냉동-진도계 어질리티장 820m) 구간과 삼성사(KT 진도지사-인산아파트 570m) 구간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전선지중화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와 통학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시각적 경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상생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

목포해경, 연안 해역 안전시설물 합동점검

목포해양경찰서가 연안 해역에서 지속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다음달 9일까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등 8개 기관과 함께 연안 해역 위험지역 38곳을 대상으로 위험성 조사와 안전 시설물 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지난 상반기 합동점검에서 지적된 안전관리 시설

물에 대해 신규 설치·보수 요청사항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체 보강, 추가 설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갯바위, 항·포구 등에서 개인 부주의로 인한 연안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안전한 연안 해역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무지개 빛 남도

목포 ‘낭만열차1953’ 오픈

동목포 웰빙공원 부지에 3량 거치...카페·공방 등

목포시가 추억이 깃든 동목포 웰빙공원 부지에 ‘낭만열차1953’을 오픈했다. <사진>

지난 2019년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시작된 이번 사업에는 이후 전남도의 추가 지원 등 총 5억 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1953년 8월 영업을 개시한 동목포역은 임성역과 목포역 사이의 간이역으로 80년대에는 무안에서 통근·통학하는 승객들로 목포역보다 붐빈 추억의 장소이다.

시는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폐열차 2량 거치 ▲주민교육을 통한 협동조합 조직 ▲열차 리모델링 등을 추진했다.

또 특별조정교부금 등 전남도비로는 ▲동목포역사 세트장 조성 ▲폐기관차 거치 ▲장애인 편의시설 조성 ▲주변 환경 정비사업 등을 진행했다.

리모델링이 완료된 열차 3량과 세트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직된 용당1



동 주민 협동조합(낭만열차1953 협동조합)이 사용수익허가를 얻어 운영하게 된다. 열차는 카페·공방·장애인시설 및 회의실 등으로, 세트장은 전시공간으로 각각 사용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준비사업 성격으로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협동조합의 열정과 성원에 힘입어 사업이 확대되면서 여전한 거점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제주보다 빠른 완도 노지감귤

소안도 62개 농가서 11월까지 160t 수확

완도군 소안도에서 노지감귤 수확이 한창이다. <사진> 소안도의 감귤 농가는 제주 주산지 출하시기를 피해 일찍 수확이 가능한 극조생종 ‘일남 1호’와 ‘유라실생’을 재배하고 있다.

소안도 감귤작목반은 62개 농가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노지감귤을 수확하고 있다. 올해 예상 생산량은 160t으로 전망된다.

소안 노지감귤은 해풍을 맞고 자라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올해는 평년에 비해 감귤이 작고 일조량이 많아 당도가 평균 당도인 10-12브릭스(Brix)보다 1-2브릭스 높다.

소안 감귤은 껍질이 얇고 신선도가 오랫동안 유지돼 저장 기간이 길다. 소안도에서 감귤을 재배하는 모든 농가가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인



증을 획득해 생산부터 판매까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완도군은 감귤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기계용, 석회보르도액, 석회 유황 등 유기농 자재를 공급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완도, 국화 향기를 걷다

완도타워서 28일~내달 13일 1만4200본 전시

‘2022년 완도 국화 전시회’가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17일간 완도타워 일원에서 열린다.

‘완도 청정바다, 국화 향기를 걷다’라는 주제로 완도 전경과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완도타워에서 진행된다. <사진>

국화는 1만4200본이 전시된다. 특히 ‘보고, 듣는 전시회’로 만들고자 28·29일, 11월 4·5일에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작은 음악회가 열릴 예정이다. 완도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완도사랑국화동호회 회원들이 정성껏 키운 국화 분재 40여 점을 완도타워 1층에 전시한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완도사랑회에서 준비한 그림 전시회와 완도군민연합회에서 시화전도 열린다.

완도타워에서는 짚라인을 탈 수 있고 다도해일출공원 입구에서 중앙공원



까지 모노레일이 운행돼 즐길 거리도 많다. 이복선 완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군민과 관광객들이 완도 국화 전시회를 찾아 힐링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천연 미네랄’ 해남 세발나물

문내면 예락마을 등 수확 한창...연간 1074t 생산

해남군 특화작목인 세발나물 수확이 본격 시작됐다. <사진> 해남 세발나물은 해남군 문내면 예락마을을 중심으로 총 18ha에서 연간 1074t(약 20억원)이 생산된다.

소금기가 남아있는 간척지에서 자생하는 세발나물은 바닷가 주민들만 먹어볼 수 있는 겨울철 별미였으나, 2006년 해남에서 최초로 재배에 성공, 전국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섬유질이 풍부해 신선 채소를 찾기 힘든 겨울철 영양균형을 맞춰주고 해면에서 자라기 때문에 칼슘과 칼륨, 천연 미네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식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고 군은 전했다.

천연 염분을 함유하고 있어 간을 하지 않고도 생채 샐러드나 살짝 데쳐 나



물로 먹을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전국 세발나물 중 유일하게 지리적 단체표장을 등록할 정도로 브랜드화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신안 해양레저 스포츠 축제

백길 해변서 28~30일 요트경기·드론 바다사진전 등

신안군이 28일부터 30일까지 자은 백길해변에서 ‘신안군 해양레저 스포츠 축제’를 연다. <사진>

축제는 축하공연과 개회식을 시작으로 요트경기(메인), 해상 퍼레이드, 드론 바다사진전, 해변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부대행사로는 해상 포토존, 해변가요제, 특산물 판매 부스 등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해양레저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열린다.

신안군은 축제가 1004개의 섬으로 구성된 지역의 독특한 해양관광 자원과 낭만적인 가을 바다의 정취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군 요트협회 이승호 회장은 “이번 축제에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준비했다. 축제를 찾아오신 분들께 신성한 경험과 추억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